

#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Mothers' Emotional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광양보건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안 라 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 희 진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 Yang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Ra Ri A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Hee Jin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soci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age 3 to 5,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temperament, with that of their mothers' emotionality, and the social competence. 72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age bracket were surveyed. Three major findings were established. Firstly,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 to social competence. Children's adaptability and social activity were related to their pro-social behavior and the ability to internalize/externalize problems.

Secondly, children exhibited pro-social behavior only when their mother's emotional reactivity was positive.

Thirdly,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variables and their mothers' emotionality. Pro-social behavior, a lower ranking domain, was influenced by children's adaptability and mothers' emotional reactivity. The children's ability to internalize problem was influenced by adaptability. In contrast, The ability to externalize

Corresponding Author : Ra Ri A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 Yang Health College, 223-1 DeokRae-Ri GwangYang-Eup, Si Jeonranam-Do, 545-703, Korea Tel: +82-61-760-1427 Fax: +82-61-763-9009 E-mail: rarian@hanmail.net

\* 본 논문은 2005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problem was influenced by the range of activities they were involved in. Overal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influenced by their age.

**주제어(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내적 행동 문제(internalizing problem), 외적 행동 문제(externalizing problem),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 I. 서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는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Dodge, 1986). 사회적 능력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되는 대표적 능력 중의 하나로서(이숙, 최진아, 이춘아, 1995), 생의 초기 사회적 관계 형성은 일생을 거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 및 성인에게 선호 받으므로서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유아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고 바람직한 기준 및 가치가 문화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졌고(Dodge, 1986), 사회성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진다(이은혜, 1997).

유아기는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로서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 이를 통해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성취감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아의 개인 변인과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강기숙, 이경남, 2001; 양연숙, 조복희, 2001; 이해련, 최보가, 2002; 한유미, 손경화, 2004; 한유진, 유안진, 1998; Denham, et al., 2003; Eisenberg, et al., 1993)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 중 유아의 개인 변인으로는 성, 연령, 기질 등이 연구되어져 왔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다양한 측면과 유아의 사회적 발달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다. 또한, 최근 연구들을 볼 때,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 역할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Isley, O'Neil, & Parke, 1996; MacDonald & Parke, 1984)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이 변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다.

먼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 개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면, 사회적 능력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권연희(1995), 이해영(1986)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밝혔으나 김순정(2000), 김정희, 문혁준(2004), La Freniere, et al.(2002)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 남자는 여아보다 공격적이며 사회 정서적으로 적응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이옥경, 이순형, 1996; Bardwick & Douvan, 1971; Dunn & Munn, 1986)은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화 환경과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발달적 성취의 결과로서 어린 연령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Dunn & Munn, 1986).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위들은 만 2세 유아들부터 빈도가 증가하여(Hoffman, 1984),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및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 등 사회적 능력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Dunn & Munn, 1986).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박경원, 1986)도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들(서봉연, 1984; 이옥경, 이순형, 1996; Dunn & Munn, 1986)은 유아기가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며 연령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질은 생의 초기부터 유아의 개별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는 기질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Thomas & Chess, 1977),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는 것은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이는 유아가 지닌 특성과 환경적 기대 및 요구가 조화를 이룰 때 바람직한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화의 적절성(goodness of fit)'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민혜영, 1998; 이경희, 1995; Barron & Earls, 1984;

Mobly & Pullis, 1991)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기질 차원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질 차원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유아는 부모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Maccoby & Martin, 1983).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MacDonald & Parke, 1984).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자들(Baumrind, 1971; Maccoby, 198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관계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여러 차원 중에서도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그 중 한 가지 시도가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김순정(2000)은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고, 특히 이러한 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과 또래간의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와 유아간의 놀이 행동에서 정서적 표현을 다양하게 경험한 유아일수록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Donald & Parke, 1984). 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또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sley et al., 1996). 더 나아가 김옥희(2003), 최혜정(2003)은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정도 많이 표현하며 함께하기를 즐기고 자신의 생각과 활동에 대해 부모와 자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희(2003)는 총 345명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애정, 방해성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여아와 남아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슬픔과 혐오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여아는 낮은 상황에서 쉽게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예민해 하는 성향을 보이는 불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는 슬픔과 호기심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매사에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응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부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함께하기를 즐기고 자신의 생각과 활동에 대해서 부모와 자

주 의논하며 부모를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아 간에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지라도 어머니의 수용적인 정서 반응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아동 223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최혜정(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가 자녀의 슬픔과 불안을 표현하도록 따뜻하게 복돋워 줄 때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행동 유형을 발달시켰다는 많은 선행 연구들(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Hyson, 1994; Kostlink, Whiren, Sorderman, Stein, & George, 2002; Roberts & Strayer,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몇몇 변인들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을 보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도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정서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화의 주요한 담당자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도 일반적인 양육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보고하는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알아봄으로써 교사 및 부모에게 유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인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S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

(표 1) 연구 대상

대상	구분	내용	N(%)
유아	성별	남아	36(50.0)
		여아	36(50.0)
	연령	3세	24(33.3)
		4세	24(33.3)
		5세	24(33.3)
연령	30세 미만	12(16.7)	
	31-35세	44(61.1)	
	36-40세	16(22.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0(41.7)
		전문대학 졸업	23(31.9)
		4년제 대학졸업이상	19(26.4)
	취업유무	취업	27(37.5)
	비취업	45(62.5)	
월수입	200만원 이하	24(33.3)	
	200-300만원	24(33.3)	
	300만원 이상	24(33.3)	
교사	학력 경력	2년제 대학 졸업	3(100.0)
		3-5년	3(100.0)

72명과 어머니 및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반응성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이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연령( $t = .59, p < .28$ ), 학력( $df = 2, \chi^2 = 1.40, p < .49$ ), 취업유무( $df = 1, \chi^2 = 3.62, p < .07$ ), 월수입( $t = 1.32, p < .09$ )은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연령( $F(2, 69) = 1.54, p < .12$ ), 학력( $df = 4, \chi^2 = 7.86, p < .07$ ), 취업유무( $df = 2, \chi^2 = 5.03, p < .08$ ), 월수입( $F(2, 69) = 1.29, p < .18$ ) 역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동질집단임이 검증되었다.

## B. 연구 도구

### 1) 유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천희영(1992)의 유아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 유아의 기질을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다섯 가지 구성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 였고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 였다.

###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1986)의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표현과 강한-약한 정서 표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강한 긍정, 약한 긍정, 강한 부정, 약한 부정의 네 하위영역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6점 척도이다. 그러나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끼리 강도에 관계없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강도를 나누기 보다는 긍정성, 부정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긍정적 정서 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alberstadt(198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5$ 에서 .88사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서 표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 , 긍정적 정서 표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 이다.

### 3)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유아의 가설적인 정서 표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Saarni(1989)의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 사이이며 노여움, 슬픔, 두려움, 걱정, 호기심, 행복, 혐오 사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과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각각 10문항씩 묘사되고 있다. Saarni(1989)가 보고한 PACES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8$ 이었다.

### 4)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LaFreniere와 Dumas(1995)의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SCB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평정할 수 있도록 총 80문항으로 구성된 라이커트식 6점 척도로서 친사회적 행동, 내적 행동 문제, 외적 행동 문제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친사회적 행동은 총 40문항으로 유아의 적응력, 융통성, 정서적 성숙과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다. 높은 점수는 유아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융통적이며 친사회적 행동패턴을 보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성숙을 보이며 또래와 교사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적 행동 문제는 총 20문항으로 모두 역채점을 하였다. 높은 점수는 문제 행동이 적고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낮은 점수는 문제 행동이 높고 적응상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시키기 보다 철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걱정이 많고 침체되어 있으며 의존적 특성이 있다. 학급에서 행복하지 않게 보이고 또래와의 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높은 수준의 미성숙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포기가 빠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성인을 찾고 규칙적인 확신 없이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외적 행동 문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역채점을 하였다. 외적 행동문제는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적 어려움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 때 낮은 수준의 문제 행동을 의미하고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공격적이고 성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래를 희생시키며, 화나거나 부정적 정서 표현을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SCBE는 본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변안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2인 및 대학원생 1인에게 의뢰하여 내용과 문장 이해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예비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교사 3인에게 작성하도록 의뢰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LaFreniere와 Dumas(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였다.

**C.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는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어머니 설문지 총 30부를 배포한 후, 수거된 27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및 관찰 기간 중 결석한 유아를 제외하고 남아 11명과 여아 10명을 예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모 설문지를 보낼 때에는 하원 시간을 이용하여 서류봉투에 설문지와 함께 유아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의 가족 구조변인에 대한 정보를 교사로부터 수집하여 기록하고, 사회적 능력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여 최근 1개월 동안의 평균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 두 곳에서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두 유치원에서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유사한 각 연령별 1학급씩을 선정하여 부모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

하고, 교사 설문지 수거 및 가족 구조변인에 대한 정보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D. 자료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정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t 검정, F 검정(사후 검사로 Scheffé 검정),  $\chi^2$ , Pearson's correlation 및 단계적 방식(stepwise)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개인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1)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과 같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사회적 능력은 3, 4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세( $M = 3.73$ )와 4세( $M = 4.31$ ) 유아 보다 5세( $M = 4.95$ )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69) = 31.02, p < .001$ ). 하위 영역인 친사회적 행동은 3세 유아( $M = 4.372$ ) 보다 4세( $M = 4.75$ ) 유아가 높았고 4세 유아보다 5세 유아( $M = 5.09$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69) = 11.94, p < .001$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표 2>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

유아의 성	남아( $n = 36$ )	여아( $n = 36$ )	$t$
사회적 능력	$M(SD)$	$M(SD)$	
친사회적 행동	4.37(.71)	4.29(.76)	.46
내적 행동 문제	5.31(.64)	5.08(.72)	1.44
외적 행동 문제	4.99(.59)	5.22(.62)	-1.59
사회적 능력 합계	4.74(.51)	4.73(.53)	.14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	3세(n = 24) M(SD)	4세(n = 24) M(SD)	5세(n = 24) M(SD)	F
친사회적 행동	3.73(.52) <sub>a</sub>	4.31(.45) <sub>b</sub>	4.95(.62) <sub>c</sub>	31.02***
내적 행동 문제	5.05(.51)	5.30(.64)	5.23(.87)	.84
외적 행동 문제	4.98(.83)	5.11(.40)	5.22(.52)	.40
사회적 능력 합계	4.37(.48) <sub>a</sub>	4.75(.34) <sub>a</sub>	5.09(.52) <sub>b</sub>	11.94***

\*\*\* $p < .001$ ; <sub>abc</sub>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표 4〉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친사회적 행동		.27*	.05	.09	.06	.18
내적 행동 문제		.37**	.34**	-.05	.08	.14
외적 행동 문제		-.13	-.31**	.08	-.07	-.19
사회적 능력 합계		.24*	.01	.08	.04	.09

\* $p < .05$ . \*\* $p < .01$ .

증가하지만 내적 행동 문제 및 외적 행동 문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과 활동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r = .27, p < .05$ )이 높고 내적 행동문제가 적으며( $r = .37, p < .01$ ) 전체적인 사회적 능력( $r = .24, p < .05$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적 행동 문제( $r = .34, p < .01$ )가 적고 외적 행동 문제( $r = -.31, p < .01$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유아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고 내적 행동 문제가 적으며, 일상생활과 놀이를 할 때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내적 행동 문제는 적지만 외적 행동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만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 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r = .23, p < .05$ )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능

〈표 5〉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어머니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성	
친사회적 행동			.23*
내적 행동 문제			.14
외적 행동 문제			.08
사회적 능력 합계			.23*

\* $p < .05$ .

력( $r = .23, p < .05$ )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 정서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아의 연령,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2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적 행동 문제에는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이 14%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은 유아의 내적 행동 문제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외적 행동 문제에는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이 9%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연령이 11%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

모형		B	Beta	R	R <sup>2</sup>	F
친사회적 행동	1 (상수) 연령	76.42 7.96	.36	.36	.13	10.39**
	2 (상수) 연령 적응성	51.51 7.51 9.44	.34 .24	.43	.19	7.91**
	3 (상수) 연령 적응성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21.23 6.88 8.86 2.96	.31 .23 .18	.47	.23	5.85*
내적 행동문제	1 (상수) 적응성	36.37 5.50	.37	.37	.14	11.18**
외적 행동문제	1 (상수) 활동성	94.02 -6.40	-.31	.31	.09	7.28*
사회적능력	1 (상수) 연령	194.06 10.67	.34	.34	.11	9.00**

\* $p < .05$ . \*\* $p < .01$ .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만 3, 4, 5세 유아 72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변인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권연희(1995), 박경원(1986), 이혜영(1986), 이옥경, 이순형(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권연희(1995)는 만 5, 6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교사 평정에 의해 측정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측정했을 때 어떠한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이혜영(1986)은 만 4, 5세 유아 156명을 대상으로 교사 평정에 의해 사회적 관심 및 참여도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성 등을 구성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능력을 평가한 결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본 연구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가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들(김순정, 2000; 김정희, 문혁준, 2004; La Freniere, et al., 2002)과 상반된 것으로서, 이들은 남아의 공격적 행동이 여아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이 넓고, 여아에게는 순응적일 것을 기대하는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유능성의 성차가 대부분의 평가자가 여성인 교사나 어머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의 결과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성

차가 나타난 이유를 위와 같이 사회화 과정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지만, 척도의 성격이 여아에게 더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측정 방법의 오류 때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가 규정하는 대부분의 친사회적 행동이 남성성 보다는 여성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Eagly & Crowley, 1986).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내적 행동 문제 및 외적 행동 문제 등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구 도구가 남녀 유아의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문항으로 적절히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평정에 의해 측정된 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성차가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측정했을 때는 어떠한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부 연구(권연희, 1995)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사회적 능력 평정 기간이 겨울방학 기간으로써 학기 초와 다르게 학년말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남녀 유아가 습득했기 때문에 내적 행동 문제와 외적 행동 문제 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할 때 남녀 유아별로 학기 초와 학기말, 학년 말 등 측정 시기를 다르게 함으로서 유아교육기관 및 교사의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인 친사회적 행동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적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가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봉연(1984), 이옥경, 이순형(1996), Eisenberg -Berg와 Hand(1979), Green과 Schneider(1974), Staub(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회 학습이론과 사회인지적 발달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타인의 친사회적 행동 및 이타적인 행동 모델을 관찰하고 친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부모 및 교사로부터 강화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함께 친사회적 능력도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Staub, 1971).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인지적 판단 능력도 발달하고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이 발달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에 필요한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Pearl, 1985), 사회적 책임감 및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발달하며 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역할 조망의 발달(신양재, 1999) 등 사회 인지적 역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도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과 활동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고 내적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내적 행동 문제는 적지만 외적 행동 문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1995), 민혜영(1998), Lewis(1977), Lee와 Bates(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특정한 기질 특성을 소유한 유아들에게서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고 문제 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면서, 유아의 기질을 파악하여 부모 및 교사가 이에 적절한 조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내적, 외적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의도적인 사회 교육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의도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 함께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성 발달을 위한 덕목들을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덕목으로는 감정과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상황에 알맞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기질을 부모 및 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고, 유아의 기질에 적절한 상호작용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활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유아는 정적 활

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거나 외적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언어적 또는 친사회적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더딘 유아에게는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철회시키거나 성인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또래 놀이 상황에 처음에는 교사와 함께 참여하면서 점차 교사가 철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정(2000), 최혜정(2003), Eisenberg *et al.*(1992), Hyson(1994), Roberts와 Stray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연구자들은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화의 기초가 되며 건전한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수용적 정서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는 유아가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특히 또래 및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개인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인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 적응성,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것으로서 권연희(2002), 이옥경(2003), 민혜영(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 모델을 경험하고 사회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지만, 기질적 특성과 같은 생득적인 기제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아의 선천적인 성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유아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의 내적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해 적응을 잘 할수록 유아의 내적 행동 문제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1995), Barron과 Earls(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은 유아의 낮은 접근성과 활동성, 낮은 지속성, 부정적인 기본 상태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을 예언해 주는 기질 범주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외적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유아의 외적 행동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성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에 대한 또래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민혜영(1998)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추론해 보면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평정하는 방법은 교사, 부모 등에 의한 평정 및 관찰, 자기 보고식 방법을 통한 행동 평정법과 또래관계를 평정하는 사회성 측정법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교사와 또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인과 또래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교사는 학급에서 문제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때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지만 또래에게 있어서는 교사와 일치하는 또래수용성이 나타나지 않았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Kliewer, 1991). 교사의 평가와 또래의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연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봉연(1984), 이옥경, 이순형(1996), Eisenberg-Berg와 Hand(1979), Green과 Schneider(1974), Staub(197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인 연령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개인 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권연희(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Kyrios와

Prior(1990)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로 아동기에 비해 유아기에는 유아 개인의 기질적 특성 및 연령과 같은 유아 개인의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 및 행동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됨이 밝혀졌다.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았을 때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 교육 시에 부모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유아 교사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발달의 전반적인 경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의 성, 연령, 기질에 따른 발달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교육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사는 유아의 개별적 기질을 파악함으로써 유아 개인의 기질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동기와 달리 유아기는 유아 개인의 기질적 특성 및 연령과 같은 유아 개인의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 및 행동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의 중류층 가정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환경의 유아들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환경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양에서 개발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이고 연구대상자가 생활하는 문화권에서 타당한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화권에 적절한 신뢰할만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은 부모가 평가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여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한 유아에 대해 부모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기질과 사회적 능력 등

동일한 연구 내용에 대해 질문지 이외에 직접적 관찰 및 면접 등을 통해 함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효율적 행동뿐만 아니라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아의 정서적 성숙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어 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포함한 세 하위 변인으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능력 측정 도구는 그 개념이 매우 넓어서 연구 결과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남(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권연희(1995).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연희(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정(2000).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희(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과 개인 내적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봉연(1984).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 155-176.
- 신양재(1999). 아동의 도덕 규범과 친사회적 문제 행동 상황에서 어머니의 아동 역량 판단, 귀인 및 통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연숙,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이경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 양육 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숙, 최진아, 이춘아(1995).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55-69.
- 이옥경(2002). 과제의 특성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경, 이순형(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이은혜(1997).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 난이도 지각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17(2), 119-137.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정(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미,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ardwick, J. M., & Douvan, E.(1971). Ambivalence: The socialization of woman. In V. Gormick., & B. K. Moran (Eds.), *Woman in sexist society* (pp.22-45). New York: Basic Co.
- Barron, A. P., & Earls, F.(1984). Relation of temperament and social factors to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23-33.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 J., Sawyer, K., Auerbach-Major, S., et al.(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odge, K. A.(1986). Fa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

-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Children's peer relation. New York: Springer-Verlage.
- Dunn, J., & Munn, P.(1986). Sibling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Eagly, A., & Crowley, M.(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y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 283-308.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pp. 57-73). San Francisco: Jossey-Bass.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Berg, N., & Hand, M.(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2), 356-363.
- Green, F. P., & Schneider, F. W.(1974). Ag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boys a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1), 248-251.
- Halberstadt, A. G.(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offman, M. L.(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 35-4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son, M. C.(1994).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The contribution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47-1055.
- Isley, S. L., O'Neil, R., & Parke, R. D.(1996). The relations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 7-23,
- Kliewer, W.(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Type A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Kostlink, M. J., Whiren, A. P., Sorderman, A. K., Stein, L. C., & George, K.(2005). 유아를 위한 사회정서 지도.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공역). 서울: 교문사. (2002년 원저발간).
- Kyrios, M., & Prior, M.(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1), 67-93.
- La Freniere, P. J., & Dumas, J. E.(1995).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Preschool Edition.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a 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et al.(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ee, C. L., & Bates, J. E.(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8(5), 1314-1325.
- Lewis, J.(1977). The relation of individual temperament to initial social behavior. In R. C. Smart, & M. S. Smart (Eds.),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pp. 45-77). New York: Macmillan.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 Mobley, C. E., & Pullis, M. E.(1991). Tempera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577-586.
- Parker, J.,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arl, R.(1985).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s need for help: Effect of problem explicitness and type. *Child Development, 56*(3), 735-756.
- Roberts, W., & Strayer, J.(1996). Empathy , Emotional Expressiveness ,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449-470.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oma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301).
- Staub, B. (1971). A child in distress: The influence of nurturance and modeling on children's attempts to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30-140.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enner /Mazel Press.

---

(2007년 10월 12일 접수, 2007년 12월 21일 채택)